

돌아온 조국... 정치판 지형 흔들 변수로 급부상

정계 '3개 선택지'에 관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월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온다. 법무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2188명(정치인·고위공직자 27명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건은 '복권'이다. 유죄 판결로 상실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조 전 대표는 법적 제약 없이 즉시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사면 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당권 복귀 △보궐 출마 △합당론의 '삼중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형 집행 면제와 함께 정치적 권리 회복이 포함됐지만, 사면이 유죄 확정 효력을 소급해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과 야권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범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적 기회의 장"이라는 평가와 "시기명분에서 무리가 있다"는 경계론이 맞서고 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강경한 비판을 내놨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정한 사면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출소 당일 조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①당정 즉각 복귀하나
전대 재추대로 당무 복귀 유력
친문계 "지방선거보다 시급"
- ②보선·지선 직행하나
서울·부산시장에 출마설 솔솔
상징성·정치적 고향 '저울질'
- ③민주당과 합당하나
양당 합당 맨 메가톤급 후폭풍
친명 그룹 신중론 유지가 변수

에도 이목이 쏠린다. 첫 발언이 '국민 통합'과 '민생'에 방점을 찍을지, '검찰 개혁' 등 과거의 정치 어젠다를 재가동할지가 향후 행보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의 선택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즉각적인 당권 복귀다. 조국혁신당 내부는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다. 복권으로 즉시 당무 복귀가 가능해진 만큼, 전당대회를 통한 재추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문계와 중진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보다 당대표 복귀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일정 기간 전국을 돌며 지지층과 원로를 예방하는 '숨 고르기'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보궐지방선거 '직행론'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일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거론된다. 서울은 전국적 상징성과 과급력이 크고, 부산은 조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점이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서울은 전국 정치의 무대이자 여론의 중심지로서 상징성과 과급력을 동시에 갖춘 '최대 무대'라는 평가가 자자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전국 단위 이슈 선점과 중도층 공략이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은 야권의 정치적 거점이자 치열한 각축장이어서, 승리할 경우 상징 자산이 배가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영남권 기반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부산 귀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조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은 인지도가 높고 지역 정서와 친밀도가 깊어 안정적인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을 견인해 범여권의 전국 선거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들은 "서울은 리스크가 크지만, 부산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민주당과의 합당론이다. 사면 직후 범여권 재편 구상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통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권 재창출' 또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명분으로 한 합당이 추진되

면 양당의 세력 결합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내부 기류는 미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한 '친문' 권역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류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여권의 외연 확대와 지지층 결집 극대화를 위해 '빅텐트' 구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정치적 복권'으로 해석하며, 조기 합류가 내년 총선과 대선 전략에 긍정적 과급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즉 '친명' 진영은 신중론을 유지한다. 조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일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선부론 통합은 중도층 반발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전략적 연대나 선거 국면에서의 후보 단일화 정도가 현실적"이라며, 조직 통합 대신 상황별 맞춤형 공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결국 범여권 통합 논의는 '즉각 합당'과 '조건부 협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며,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와 여론의 흐름이 최종 결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복귀 일정이 한 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소 직후에는 짧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후 1주일 내 전국 예방과 내부 전략 점검을 거쳐 이달말까지 복귀 포맷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10일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에 골프를 치러 방문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는 모습. 뉴탐사 유튜브 캡처

통일교 골프장 라운딩 포착 권성동 "악의적 왜곡" 반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이 포착된 데 대해 "절대 의혹은 코미디"라며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제 몫을 직접 결재했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예고했다.

권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고, 해당 시설은 다수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무슨 부정행위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는 "최근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게 아니다"라며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건 억지"라고 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탐사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 의원이 10일 오전 6시42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관용차로 보이는 차량에서 내린 권 의원은 라커룸 열쇠를 건네받아 들어간 뒤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라운딩 출발점에서 일행과 합류했다.

이날 일행 중에는 권 의원 지역구인 강릉시에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도 있었다. 권 의원은 오후 1시쯤 라운딩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뉴탐사는 그 비용을 타인이 계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골프장은 통일교 소유로, 권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 무대와 직접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정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국힘 비상계엄 반성·사과 충분” 23% 불과... “이게 민심”

윤희숙 “혁신후보자 지지” 여의도연구원장 사퇴 표명

국민의힘 인적 쇄신을 주장하며 당 혁신을 주도해 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며 여의도연구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민심에 다가가기'는 혁신후보들과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려 사유화하려는 윤여계인 세력'의 총동"이라며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맡아먹으려는 '윤여계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8월 5~6일 이뤄진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며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 이게 현재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이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는,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여계인 후보들"이라며 사실상 '반당'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기호위 친윤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젠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맡아 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한다.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경선 중립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조경태·안철수 등 탄압과 후보들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SNS에 "윤희숙 위원장의 고귀한 헌신과 혁신 정신을 잘 계승하겠다"며 "윤여계인 세력

들을 반드시 척결해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완수해 당을 잘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또한 "윤 위원장의 말대로 우리는 당을 지켜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전한길을 변호하는 세력은 분명히 당을 과멸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을 살리는 길, 혁신뿐"이라며 "당을 위해 저 안철수가 처절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지음
AOSB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